

SMART CITY SearchLight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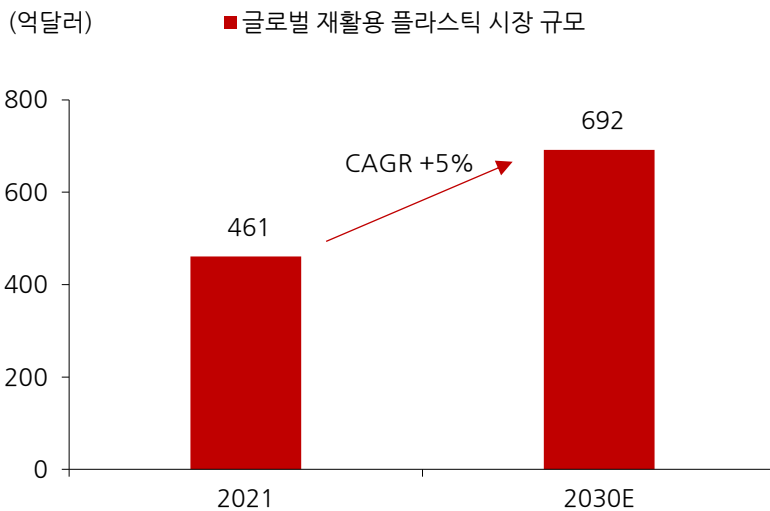
R.A. 정규진 / 3773-9995
정유·화학·박한샘 / 3773-8477



대기업 금광 된 플라스틱 폐기물 시장, 성장 지속한다

관련 뉴스 요약 “고물이 보물로…폐플라스틱 재활용이 뜬다”

글로벌 재활용 플라스틱 시장 규모 전망



자료 : Grand View Research, SK증권

- 에스케이오센트릭, LG화학, 롯데케미칼 등 석유 화학기업은 재생원료 수요 증가 대비해 폐플라스틱 재활용 산업 진출, ‘화학적 재활용’ 기술 선점 경쟁
- 화학적 재활용의 일종인 열분해 기술 개발 집중. 열분해는 폐플라스틱에 열을 가해 기름 추출 후 이를 다시 석유화학공정에 투입해 새 플라스틱으로 제조하는 기술
- 정부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제품 원료로 활용할 경우 탄소 감축효과 고려해 탄소배출권 인정하도록 지침 개정 예정. 폐플라스틱 산업 성장 지속 전망

#폐플라스틱 #열분해 #탄소배출권

Briefing

“독일 도심항공교통(UAM) 기업 볼로콥터, 한국 진출...” “2024년 서울서 UAM 서비스” (출처: 디지털투데이)

- 2024년 서울에서 항공택시 서비스 제공 목표. 전기 비행택시 ‘볼로콥터’ 외에도 ‘볼로드론’ 등도 개발 중

“英 캠브리지대, 음식 맛을 느끼는 로봇 셰프 개발” (출처: 로봇신문)

- 유럽 가전기업 '베코'와 공동 연구. 음식 씹는 각 단계마다 염도 평가해 맛 평가, 조리 과정 자동화 기여 기대